

같이 보기

: 근로자 가요제 수상 인터뷰



‘대한산업보건협회 다비켜’ 전국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선사하다

글 복해용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 사내기자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KBS 한국방송이 주최하는 제43회 KBS 근로자 가요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가요제에서 경인지역본부 보건관리팀에 재직 중인 유진희, 윤정아 선임 과장이 당당히 전국예선을 뚫고 올라가 동상을 받는 기쁨을 토했다. 지금부터 경인지역본부 ‘다비켜’ 유진희, 윤정아 선임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Q 근로자 가요제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친한 동료인 이희서 과장의 소개로 “추억이나 만들어볼까?” 하는 가벼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뭔가에 끌리듯 참가 후 바로 노래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Q 평소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2010년 입사 동기로 평범한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평소 음악적 취향뿐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Q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예선이 진행되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선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고 선발된 25명(팀)이 서울에서 오프라인 중간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절반인 12명(팀)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심사가 서류심사에서 오프라인 심사로 급하게 변경되면서 많은 연습을 하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Q 예선과 본선 참가곡이 다른데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예선 참가곡은 이무진의 ‘신호등’을 ‘다비치 버전’으로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며 추천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오프닝 곡으로 ‘신호등’이 선정되어 방송 관계자의 권유에 의해 급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팀 색과 어울리는 다비치의 ‘8282’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셨으나 유진희 과장의 제안으로 코로나 시국에 전국의 힘든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러브홀릭스의 ‘Butterfly (영화 ‘국가대표’ OST 2009)’로 선정했습니다.



Q 본선 녹화 직전에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곡이 급하게 변경되었고 연습을 막 시작하려는 도중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총 3주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자가 격리로 1주일을 허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목 상태도 좋지 않았으나 참으며 2주일간 퇴근 후 매일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울면서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Q 첫 공중과 무대인데 많이 떨리진 않으셨나요?

본선 진출자 중 저희 빼고 대부분 평소 버스킹, 유튜브, 밴드 활동을 하던 분들이기에 너무 부담감이 컸고 떨렸습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처음인데 방송이러니... 많이 어려웠습니다. 구병근 지부장님의 추천으로 안정제를 먹었는데도 어찌나 긴장했는지 무대를 앞두고 유진희 선임 과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윤정아 선임 과장은 계속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이렇게 놓치는 건 나중에 큰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용기 내어 도전했고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

Q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꽃도 보내주시고 직접 응원해 주신 백헌기 회장님, 정정희 노조위원장님, 이상태 경영이사님, 이범식 지역본부장님, 구병근 노조지부장님, 염혜경 팀장님, 강태관 운영지원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다 못 드렸지만 개인 시간까지 할애해 응원 와주신 우리 팀원들 정말 고맙습니다! 🍀